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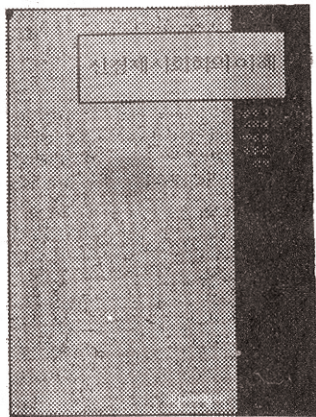
■서평/

신경제사회학의 이해

다양한 학술흐름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이번호부터 학술서적 서평이 실립니다.

이 란이 학우들의 학문적 관심 정립과 폭넓은 시각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주)



인간행위의 경제적 측면 즉,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지금까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이들은 '주어진 선호에 따라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인간들이 모여 있는 시장'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시장에서의

합리적인 선택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이해(self-interest)를 실현시켜 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 차원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져다 주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파악된다. 물론 이렇게 개념화된 시장에서는 개인의 경제적 행위가 정치적인 권력이나 사회적인 연대와 같은 집합적인 사회구조와 분리하여 존재한다. 따라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행위는 모두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개별적 행위일 뿐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신경제사회학」의 저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간의 경제적 행위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처한 사회구조와 사회관계 속에서 '배태'(embedded)된 사회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개인의 경제적 행위가 사회적 관계에 의해 배태되었다는 주장은 앞에서 말한 신고전경제학의 기본 가정과 어떠한 차별성을 갖게 되는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들은 개인의 선호를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이 좋고 가치있는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은 결국 '사회화'라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이들은 경제행위를 분석할

# 사회구조와 분리된 경제분석 공허 학문적 폐쇄성 지양 경향, 신경제 사회학 대동

때 개인의 선호를 주어진 것으로 취급하여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전경제학의 입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둘째, 개인의 합리성이 개인이 속한 사회관계 및 사회구조와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은 시장의

따라서 이들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행위가 선택되는 사회적 맥락과 조직의 구조를 중요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이들은 계급, 가족, 국가 등과 같은 집합적 수준의 의사결정(선택)이 존

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는 사회성이 결여된 경제학적 인간관을 거부하고 나름대로의 인간관을 썼기 때문이다. 맑스나 베버 혹은 뒤르케임과 같은 사회학의 초기 거장들은 모두 공리주의적인 경제적 인간관을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사회학은 이들 거장들의 기여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지 못한 채 경제학과의 영역싸움에서 패해 경제학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소위 잔여주제(leftovers)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는 학문적 열등성을 보여 주어 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현상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할 때, 시장과 같은 자본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사회적 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장을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성과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

사회학이 출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는 사회성이 결여된 경제학적 인간관을 거부하고 나름대로의 인간관을 썼기 때문이다.

개념에 대한 신고전경제학의 개체주의적인 접근을 부정하고 있다. 무수히 많은 呼價者가 대등한 관계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시장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구조물로서 다양한 사회세력이 집합적인 이해관계를 다루는 시장의 개념이 보다 현실에 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집합적 선택은 미시적인 차원의 합리적 선택을 제약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말한다.

「신경제사회학」의 저자들이 주류경제학을 바라보며 제기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의식은 사실 어제 오늘의 것은 아니다. 저자들이 책머리에서 밝히고 있듯이 학문의 역사가 짧은 사회학이 출발

러한 학문간의 불편한 분업은 서서히 무너지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경제학 내부에서는 비경제적 연구대상인 법, 제도, 역사, 인구, 결혼, 정부 등을 경제학적으로 연구한 게리 베커, 안토니 다운스, 제임스 부케넨, 더글라스 노스 등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올리버 윌리엄슨의 신제도경제학은 경제조직을 생산비용이 아닌 거래비용의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알프레드 찬들러는 기업조직의 역사적 생성 및 발전을 기업의 사회적 환경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더욱 고무적인 변화는 사회학에서도 1980년대를 지나면서부터 경제학에서의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경제사회학이 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경제사회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이 패러다임은 경제학에서의 신제도경제학, 사회학에서의 합리적 선택이론과 관계망분석, 정치학에서의 신제도이론, 유럽에서의 사회경제학 등을 포용하면서 국제경제, 노동시장, 기업의 위계조직과 역사, 시장과 조합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하여 연구성과를 쌓아 가고 있다.

네 사람의 젊은 사회학자가 펴낸 「신경제사회학」은 바로 이러한 주제를 다룬 최근의 연구성과

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제1부는 책 전체의 문제제기를 설명하는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제2부에서 제5부까지는 경제현상을 각각 제도, 문화, 구조, 조직이라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들여다 본 다양한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연구성과들은 물론 이미 각 학문 분야에서 개별적으로는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아 온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경제학과 사회학의 간격을 메꾸어 나가야 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할 주제들임에 틀림없다. 또한 인접 학문과의 학제간 공동연구를 통해 사회과학의 분과학문들이 학문적 폐쇄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기준에서도 이 책의 구성은 신선한 자극을 제공해 준다.

, 이 책을 펴낸 이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작업을 통해 산업, 직업, 기업, 시장(상품, 노동, 자본)등과 같은 사회학적인 개념을 활용하여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을 기대해 본다.

유 석 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